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02	01. 09	01. 16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경배 –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2. 신년예배 - 아브라함교회 사정으로 2일(주일)에 신년축하예배드립니다(신년헌금)
3. 감사 – 2021년 대면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성경 완독 – 성경을 다 읽으신 성도들은 담임목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12월 생일 – 장래황, 김대철 형제, 김민혜 자매
6. 재외국민등록 신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신고(1월 8일까지)
7. 코로나 대응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Luca 확인)

교우동정

생일	김민혜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2021-52 2021년 12월 26일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탄 축하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122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영희 시무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시 8 : 4 - 9(구p808) ····· 김영희 시무권사
(Psalm 8:4-9)

설 교 Predigt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125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묵상으로 대신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오장육부와 5대양 6대주

전에 TV를 보다가 흥미로운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건강 전문가가 인체와 지구는 닮은꼴이라며, 해와 달은 눈, 강이나 물은 피, 숲은 머리카락, 땅은 피부와 살, 금이나 돌은 뼈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와 인간의 몸을 지으신 이는 동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새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술적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과 지구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몸의 70%가 물입니다.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듯이 지구도 5대양 6대주로 나뉩니다. 태어나서 청년으로 자라고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는 사람의 일생과 꽃 피는 봄, 무성한 녹색 여름, 열매 맺는 가을, 분발(백발) 휘날리는 앙상한 겨울이 서로 닮았습니다.

진화론은 빛과 대기, 땅이나 물과 같은 생존 현장이 먼저 완벽하게 조성되고나서 생물이 등장하는 이론으로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외부 세계의 조건과 상관없이 원시적인 생명체가 저절로 '고등 진화'를 거듭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인간의 몸과 외부 세계 질서 간의 경이로운 조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사45:18)" 말씀처럼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몸을 지으신 주체는 동일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 / 안환균 목사
(그말씀 교회 담임)

*** 온 땅과 만물은 수많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 Samuel Taylor(영국 시인) -

브레멘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